

광주·전남 한파에 미세먼지...주말 더 춥다

전남 14개 시·군 등 오늘 아침 최저기온 큰 폭 하강...새벽 비·눈 서울·충남 등 미세먼지 주의보 속 광주·전남 올 겨울 첫 영향권

광주·전남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9도 안팎으로 급락하고 새벽에는 눈·비가 내리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수도권과 전북지역에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광주·전남 지역도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권에 들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광주·전남 지역에 '한파 영향 예보'를 발표했다.

한파영향예보는 한파 특보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전남 대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건강, 시설물 관리 등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될 때 발표한다.

한파특보는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광주를 비롯해 전남 14개 시·군(영광·화순·곡성·순천·광양·보성·여수·무안·목포·영암·해남·진도·신안·완도), 거문도·초도 등지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7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23일 12.5도에서 24일에는 3도로 9.5도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에서는 광양이 23일 아침 기온 11.9도를 기록한데 이어 24일에는 2도로 떨어진다. 9.9도나 떨어져 광주·전남지역에서 기온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완도(6도), 영광(3도) 등지도 기

온 하락폭이 크다. 광주·전남의 낮 최고기온은 5~10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는 24일 새벽에 비 또는 눈이 예보됐다.

이날 새벽 0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 전역에 5mm 미만의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전남 북부 내륙에서는 1cm 안팎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또 25일부터는 광주·전남 곳곳의 아침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며, 전남 내륙은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기상청은 "23일까지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 위치한 따뜻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으나, 24일부터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북서풍이 불고 기온이 크게 하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힘든 겨울나기를 예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23일 서울·경기 지역과 충남, 전북 지역에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광주는 오후 6시 기준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 농도 123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59 $\mu\text{g}/\text{m}^3$ 을 기록했다. 전남 또한 미세먼지 91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45 $\mu\text{g}/\text{m}^3$ 까지 수치가 올랐다.

광주·전남의 농도는 주의보 발령 기준(미세먼지 150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75 $\mu\text{g}/\text{m}^3$)에는 못 미쳤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5월 22일이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북쪽에서 남동진하는 대륙 고기압을 타고 남해해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다"며 "24일부터는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가 견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열대성 미생물 '엽권지의류' 신안 가거도에서 2종 발견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열대·아열대 기후에 서식하는 엽권지의류(Follicolous lichen) 2종의 생육범위가 드러났다.

23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순천대 허재선 교수팀과 실시간 국내 섬 지역 미생물 다양성 연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바위 표면이나 수목의 수피에서 생장하는 일반적인 지의류와는 달리, 엽권지의류는 수목의 잎에 착생해 살아가는 독특한 생태를 가지며 주로 열대지역의 상록활엽수에서 발견된다.

지난달 호남권생물자원관이 신안 가거도에서 발견한 엽권지의류 청엽지의속(Strigula)은 2009년 제주도에서 2종이 최초 보고된 이래 2013년에 4종, 2020년에 2종의 제주도 분포가 추가 보고됐다.

신안에서 발견한 청엽지의류 2종은 2018년 제주도에서 발견돼 2020년 최초 보고된 것과 같은 종으로 확인됐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동신 엑스포' 미래 유망기술 한자리에 23일 나주시 빛가람동 동신대혁신융합캠퍼스에서 열린 '2023 동신 엑스포'를 방문한 시민들이 인공지능과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유망기술을 체험해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안군, 간부 사칭 사기사건 주의보

"군수 선거 도와달라" 요양보호시설 등에 구매 요구

"무안군청 기획실장 A라고 합니다. 군수님 선거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안에서 무안군 간부공무원을 사칭해 '무안군수 선거에 도움을 달라'는 수법의 사기사건이 접수돼 비상이 걸렸다.

무안군은 지난 15일 '무안군 간부공무원 사칭한 사기사건 발생 유의'라는 공문을 무안군 전 실과에 배포했다.

지난 9일 무안의 한 요양보호시설 등에 자신을 무안군청 간부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사기 사제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 통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무안군청 간부공무원의 실명까지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무안군 간부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사기

범은 "군수님께서 자신을 불러 선거와 관련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도움을 주라고 지시했다"며 "시설을 방문할테니 판매에 도움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내용은 비공식적인 사항이니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통화를 한 시설장은 의구심을 품고 타 시설장들과 해당 내용을 공유해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안군의 설명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광주시, 5·18 행불자 신원 확인 박차

광주시가 80년 5·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신원 확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9년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에서 유전자 분석 사업을 실시해 지난 6월말 현재 446명에 대한 유전자 확인 작업을 마무리했다.

앞서 광주시는 전남대학교 법의학과실과 함께 지난 2001년부터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 유가족에 대한 재해를 추진했었다.

80년 5·18민주화운동기간인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행방불명자로 신고 접수된 전체 신고자는 모두 242명이다. 이 가운데 채명하지 않은 유족은 14가족이다. 유족이 거부하거나 신고자가 사망해 유가족이 없는 경우, 유가족이 해외에 거

주하면서 채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이다.

지난 14일에도 행불자 피해신고가 추가 접수돼 유가족의 혈액 채취를 실시한 뒤 그동안 암매장 제보현장에서 발굴, 수습된 유해와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진행중이다.

광주시와 조사위는 앞으로도 행방불명 피해신고를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 발견된 유골과 DNA 비교 분석작업을 전문기관에 맡겨 그 결과를 조사활동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광주시는 조사위 활동이 오는 12월26일 종료됨에 따라 '행불자 가족찾기 사업'의 지속을 위해 '혈액채취 및 유전자 분석사업'을 2024년 예산에 반영했다. 또 조사위가 가지고 있는 DNA 분석 데이터와 시신 유골 등도 이관받을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민 60% "3년내 청년 일자리 사업 개선 안될 것"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조사

광주지역 시민들이 청년 일자리 사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노동 이슈에 대한 광주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이달 1일부터 5일간 광주시민 1047명

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향후 3년 이내 청년 일자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부정적 인식이 전체 60.1%를 차지했다. 청년층 역시 20대 63.4%, 30대 58%가 청년 일자리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영세사업주의 경우 긍정율 23.4%로 직업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

체지만, 향후 경기 전망과 청년 일자리의 미래가 나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주 69시간 노동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42%가 긍정, 58%가 부정적이었다. 연령대별로 50대가 74.7%로 가장 높은 부정율을 보였고 20대가 67.8%로 뒤이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